

제8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북경대학교	성명	유량 (劉暢)	학년	3	생년월일	2014년 6월 14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개꽃한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
 개꽃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
 이 필요할까? 내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
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이 깨끗한 마음
 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. 다시
 문제가 생긴다.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
 음일까? 실은 중국어로 "깨끗하다"라는
 말어를 제대로 정의하기가 어렵다. 그 때
 서 여기서 나는 우리 선조의 지혜를
 조금 빌리고 싶다. 중국에서는 "세풍일
 하, 인심불고" (世風日下, 人心不古)라는
 한자성이 있다. 이 세상의 풍기가 날
 로 나빠지고 사랑의 마음이 선조 때 지
 않게 된다는 뜻이다. 이에 따라 나는
 "개꽃한 세상을 만들자!"라기보다는
 "개꽃한 세상을 되찾자!"라는 표현이 더
 적당하다고 생각한다.
 그래서 오늘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
 싶다. 선조의 말씀 중에 고인의 마음이
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.
 다시 해이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
 은가? "선비요!" 내 이감없는 대답이다.
 "아이고, 웃겨! 매일 쓸데없는 책

제8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북경대학교	성명	유창 (初榜)	학년	3	생년월일	2014년 6월 14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에만 볼 두라고 생계를 전 해 모로며
 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이 되는 것으
 록을 게 뭐가 있니? 이 자식 아작 고
 먹을 먹은 적 없네." 이 말은 일반
 태인의 반응이었지. 내 는에는 선비는
 그런 모습에 아니다. 공기를 법
 하더라도 부패가 심한 정계에 나가
 앉고, 일이 죽을 망정 이익에만 눈이
 상인에게 허리를 굽지 않는다. 이것이
 바로 내 바램 속의 선비의 이메지다.
 그리고 그들은 책에만 몰두하는 사람
 이 아니다. 자기의 수양을 높이기 위해,
 백성들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, 나라의
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
 사람들이다.
 1592년의 여몽이 있다. 왜놈들이 동해를
 건너 조선에 침략했다. 그때 우리 영웅
 한 태왕과 그의 유능한 양반들이 어
 데 있는가? 참 액살스럽더라! 무기
 빈수의 백성들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
 졌다. 황도강산은 만수무강한 참노를
 진짜 <료사료> 중의 문수처럼 "정말
 국가의 위기는 단석에 백도되는 무렵이
 다." 그럴 조선을 그때 최약의 구렁
 이에 서서 구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?

제8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북경대학교	성명	유량 (劉暢)	학년	3	생년월일	2014년 6월 14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선배들이 있다. 각지에서 백성들을 모아 의
 병을 조직한 사람도 그들이었고, 국가의
 주업을 훼손하지 않고 명나라의 도읍
 을 점한 사람도 그들이었다. 나라를 구
 한 사람은 매일 외물을 주고받고 당쟁
 에만 집중하는 "지혜로운 다오린들이"
 아이고 국가와 백성에 대해 단순한 마
 을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유생들이 있다.
 그들의 일편단심이 있다.
 전쟁 때 뿐만 아니라 평화 시대
 마찬가지였다. 나에게 가장 존경하는 역
 사인물을 물어보면 내 답은 백지원 선
 생이 틀림없다. 조선왕조 후반기의 정치
 는 혼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동
 인과 서인, 그 다음 동인은 남인과 북
 인으로 나누어지고, 서인은 노론과 소론
 으로 나뉘었다. 세상에! 아마 한족인에게
 도 기억하기가 어려운 심한 차별투쟁이 있다.
 그때 백지원 선생은 무엇을 하고 있었
 는가? 백해당학가 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 하고, 허위위식에 빠진 양반을 비판하고
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북학의 선두
 주자로 활약하고 있었다.
 = 정나라는 우리의 적이다! 우리는
 소중하다! 가명인(假明人)이다! 양반들

제8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북경대학교	성명	유창 (柳暢)	학년	3	생년월일	2014년 6월 14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이런게 말하면서 "북벌제야지!"라고 지
로는 동시에는 백 선생이 정나라으로
나행했다. "전하를 얻은 지 수십 번도
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
들었을까?" 백 선생은 길은 고만에 배
졌다. "그래! 북벌 아니고 북으로 배워
야 하길세!" 심사숙고 끝내 난 략이 있
다. 그때부터 그는 학분이 비슬같이 나
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선
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라고 깨달
았다. 그래서 청나라의 선진 기술과
제도를 소개하는 <열하일기>가 도출까
지 전래 왔다. 그래서 양반의 허위성을
비판하고 자기의 뜻을 펴는 <허생전>
이 오늘날까지 전래 왔다.
그들은 전부가 아니라. 이부의 생업을
마음에 달려 <이류도감>을 만든 정약
명 선생도 그 중의 한 명이다. 서자,
그리고 전민이 반은 불평등 대우를 누
프어 <홍길동전>을 쓴 허균 선생도
그 중의 한 명이다. 나는 이런 선비의
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라 왔다. 나도 그
들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.
다시 현대므로 돌아가 보니, 세월로
사건 때문에 월드컵도 실컷 응원할 수

100

200

300

400

500

제8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북경대학교	성명	유창 (劉暢)	학년	3	생년월일	2014년 6월 14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없는 한 국 이 다 . 사 건 때 문 에 적 발 된 복
 정 부 해 를 말 게 된 나 는 생 각 이 포 어 켜
 다 . " 이 시 대 는 모 자 라 게 뭐 가 있 을
 까 ? 왜 선 강 이 천 진 방 만 한 학 생 들 의 얼
 료 을 모 르 는 학 하 고 훈 자 해 경 신 에
 갖 을 까 ? 왜 해 경 이 해 안 에 들 어 가 지
 않 았 을 까 ? 왜 이 런 심 사 불 합 격 의 배 에
 게 운 영 허 작 등 했 을 까 ? " 고 인 의 마 음
 선 배 의 경 신 이 부 족 한 것 같 다 .
 국 가 에 대 한 애 국 심 , 일 에 대 한 책 임
 감 , 다 른 사 람 에 게 배 려 주 는 마 음 , 그
 리 고 진 리 에 대 한 고 직 , 이 것 들 이 " 등
 방 에 의 지 죽 " 인 한 국 은 잃 은 배 위 변 안
 되 는 것 이 다 . 공 가 의 제 가 인 재 가 의 말
 씬 대 로 매 일 세 번 씩 자 기 의 속 마 음 을
 반 상 라 고 일 편 단 심 을 다 시 찾아 봐 라 ! 그
 령 게 깨 끗 한 세 성 이 다 시 우리 앞 에
 동 아 올 지 도 모 른 다 ,

1021207361

유창